

등 전체 유치원의 46.3%가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을 운영했다. 과학(30.5%), 한글(9.2%), 수학(7.2%)보다 비율이 높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는 오히려 시민층을 값비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등 논란이 거셌다. 교육부 역시 영어교육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는 점, 유아 단계 사교육 팽창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가와 시·도 교육청 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용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아·초·중등교육

■ 유아교육

유치원 수는 1980년 901개소에서 1990년 8천354개소로 급증했으나, 이후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신규 설립이 주춤하며 증가세가 소폭 이어졌다. 2000년 8천494개소, 2005년 8천275개소, 2012년 8천538개소, 2013년 8천561개소, 2014년 8천826개소, 2015년 8천930개소, 2016년 8천987개소, 2017년 9천29개소로 집계됐다.

유치원 원아 수는 1965년 1만9천566명에서 1970년 2만2천271명, 1980년 6만6천433명, 1990년 4만4천532명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65만9천265명으로 1965년 대비 34배 가까이 늘었다. 2014년에는 65만2천546명으로 2013년 대비 6천719명 줄었으나, 2015년 68만2천553명, 2016년 70만4천138명으로 반등했다. 2017년에는 69만4천631명으로 전년보다 9천500여 명 감소했다.

원아 수가 2000년 이후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 것은 누리과정인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2013년부터 만 3~4세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2006년 쌍춘년, 2007년 '황금돼지'해, 2010년 '백호'해 등을 맞아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 초등학교

초등학교 수는 1945년 2천834개교에서 1965년 5천125개교, 1985년 6천519개교로 늘었다. 이후 1990년 6천335개교, 2000년 5천267개교로 줄었다가 2001년 5천322개교, 2005년 5천646개교, 2009년 5천829개교, 2013년 5천913개교, 2014년 5천934개교, 2015년 5천978개교, 2016년 6천1개교, 2017년 6천40개교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1965년 494만1천345명에서 2013년에는 278만4천 명으로 줄었다. 초등학교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70년으로 574만9천301명이었으며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저출산 영향으로 2011년 313만2천477명에서 2012년 295만1천995명으로 200만 명대로 떨어졌고 2013년 278만4천 명, 2014년 272만8천509명, 2015년 271만4천610명으로 감소했다.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267만2천843명과 267만4천227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초등학교 교원 수는 1965년 7만9천164명에서 2011년 18만625명, 2012년 18만1천435명, 2013년 18만1천585명, 2014년 18만2천672명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18만2천658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2016년 18만3천452명, 2017년 18만4천358명으로 다시 늘었다.

성별로는 1965년에는 남성이 5만8천957명, 여성이 2만207명으로 남성 교원이 월등히 많았으나, 1990년 남성이 6만8천196명, 여성이 6만8천604명으로 역전됐다. 2017년에는 남성이 4만2천294명, 여성이 14만2천65명으로 여성 교원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5.8명, 2002년 34.9명, 2004년 32.9명, 2006년 30.9명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08년 29.2명으로 20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1년 25.5명, 2012년 24.3명, 2013년 23.2명, 2014년 22.8명, 2015년 22.6명, 2016년 22.4명, 2017년 22.3명으로 계속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1년 28.7명, 2003년 27.9명, 2005년 25.1명, 2007년 22.9명, 2009년 19.8명, 2011년 17.3명, 2012년 16.3명, 2013년 15.3명, 2014년 14.9명, 2015년 14.9명, 2016년 14.6명, 2017년 14.5명으로 점차 줄었다.

■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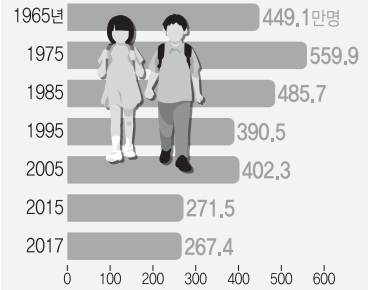
중학교 진학률은 1965년 54.3%에 그쳤으나 1980년 95.8%로 증가했다. 1995년 이후부터 99.9%의 진학률을 기록해 2017년 현재 거의 완전 진학에 이르렀다.

중학교 수는 1965년 1천208개교에서 2012년 3천166개교, 2013년 3천173개교, 2014년 3천186개교, 2015년 3천204개교, 2016년 3천209개교, 2017년 3천213개교로 계속 늘었다.

학생 수는 1965년 76만1천341명에서 1985년 278만2천173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했다. 이후 2013년 180만4천189명, 2014년 171만7천911명, 2015년 158만5천951명, 2016년 145만7천490명, 2017년 138만1천334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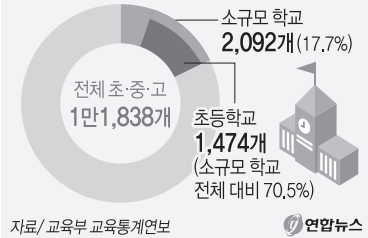
중학교 교원 수는 1965년 1만9천67명에서 1995년 9만9천931명으로 늘었다.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증가해 2013년 11만2천690명, 2014년 11만3천349명, 2015년 11만1천247명이었다. 2016년에는 10만9천525명이었고 2017년에는 10만9

전국 초등학교 증감 추이



전교생 60명이하 소규모 학교 현황

2016년 기준



자료/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연말뉴스

천13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성별 구성비는 1965년에는 남자 교원이 83.9%였으나 1995년부터 여자 교원이 남자 교원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전체 중학교 교원 가운데 여성이 69.2%를 차지했다.

1965년 60.7명에 달하던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8.0명, 2002년 36.7명, 2004년 35.1명, 2008년 34.7명, 2011년 33.0명, 2012년 32.4명, 2013년 31.7명, 2014년 30.5명, 2015년 28.9명, 2016년 27.4명, 2017년 26.4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65년 39.4명에서 1980년 45.1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2000년 20.1명, 2001년 19.6명, 2008년 18.8명, 2011년 17.3명, 2012년 16.7명, 2013년 16명, 2014년 15.2명, 2015년 14.3명, 2016년 12.9명, 2017년 12.4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는 1965년 389개교에서 계속 증가해 1990년 1천 개를 넘어선 뒤, 2010년 1천561개교를 기록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1965년 312개교에서 2010년 692개교로 늘었다.

2011년부터는 고등학교 구분이 다양해졌다. 2017년 기준으로 일반고 1천556개, 특수목적고 155개, 특성화고 491개, 자율고 158개교가 있다.

학생 수는 일반계 고교의 경우 1965년 25만4천95명에서 1990년 147만3천155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했지만 이후 증감을 반복했다. 전문계고는 1965년 17만2천436명에서 2010년 46만6천129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 기준 학생 수는 일반고 119만3천562명, 특목고 6만7천960명, 특성화고 27만4천281명, 자율고 13만3천896명이다.

일반계 고교 교원 수는 1965년 7천894명에서 2010년 9만 735명으로 늘었고 전문계 고교 교원 수는 1965년 6천214명에서 2010년 3만5천688명으로 늘었다. 2017년 현재 교원 수는 일반고 9만1천64명, 특목고 7천674명, 특성화고 2만5천853명, 자율고 1만163명이 있다.

고등교육

■ 전문대학

전문대학 수는 1965년 48개교에서 1980년 128개교로 증가했다. 이후 1990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199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999년에 161개까지 늘었다. 이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 현재 138개교로 1990년 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학생 수는 1965년 2만3천159명에 불과했으나 1980년 16만5천51명, 2003년 92만5천963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4년제 대학 진학 선호 등의 이유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 현재 67만7천721명으로 떨어졌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965년 57.5%였다가 1970년 72.6%로 높아졌다. 1975년부터 1985년 사이엔 감소 추세를 보이며 50~60%를 기록했다. 1990년부터 다시 상승해 2009년 86.5%까지 높아졌다가 2016년에는 70.6% 수준으로 떨어졌다.

■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대, 산업대, 기술대 등을 제외한 일반대학교는 1965년 70개교에서 1980년 100개교로 늘었으며,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7년 현재 189개교가 됐다. 국공립 대학교가 1965년 14개교에서 2017년 35개교로 늘었고, 사립대학교는 1965년 56개교에서 2017년 154개교로 증가해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학생 수는 1965년 10만5천643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1990년 104만166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1년 206만5천451명, 2012년 210만3천958명, 2013년 212만296명, 2014년 213만46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5년 211만3천293명, 2016년 208만4천 807명, 2017년 205만61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일반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2005년 65%, 2006년 67.3%, 2008년 68.9% 등으로 높아지다가 2009년 68.2%로 주춤했다. 2013년 55.6%, 2014년 54.8%로 떨어지다가 2015년에는 64.4%로 다시 올랐고 2016년에는 64.3%로 약간 떨어졌다.

교육계 동향

■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은폐·축소 의혹

6월 서울 송의초등학교가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학생 4명이 4월 학교 수련회에서 같은 반 학생 한 명을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물비누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는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과 특별감사를 벌여 7월 학교폭력 사건 은폐·축소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 부장, 담임교사 등 교원 4명의 해임·정직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이 문제가 된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교장·교감이나 교육감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았고, 관련 교원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 등을 유출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이 가해자와 목격자 진술서 6장을 분실한 것도 법률위반이라고 보고 학폭위 회의록 유출과 진술서 분실에 관련된 교원 전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송의초등학교는 교육청 감사결과와 교원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를 청구했다. 교육청은 이를 기각했고 결국 송의초는 9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피해자 측이 학교 학폭위 결론에 대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에서는 폭력에 가담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기업 회장 손자인 학생을 뺀 나머지 가해자 3명만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2018년 2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송의초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폭위 회의록을 학부형에게 제공한 혐의(학교